"지금은 광고주체가 힘을 합쳐 창의력을 발휘할 때"

병신년(丙申年) 새해,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고인 모두에게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중국 경기둔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올해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고를 둘러싼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 IT 기술의 발전,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의 결합 등 디지털 혁신의 변화 물결 속에서 미디어와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가 힘을 모아 창의력을 발휘해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매체는 고품격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광고회사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광고주는 자유롭고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광고시장이 조성될 때 우리 경제는 더욱 탄력을 받고 성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광고주협회는 광고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광고시장을 교란하는 유사언론행위 퇴출에 힘쓰며, 과학적인 매체 가치에 의한 광고집행 분위기를 정착시킴으로써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역할과 광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자유 시장경제 이념을 고양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사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에 회원 여러분께 밝은 희망의 빛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경재